

다니엘서 - 번호 58

봉인이 풀린 지혜: 예언 속 삼중 연합과 666의 수수께끼 탐구

Jeff Pippenger

2024-01-22

여러 증인의 증언에 의해 역사와 예언에서 로마는 언제나 여덟째로 올라오되 일곱 중에 속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상징의 예언적 수수께끼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봉인을 떼어 밝히시는 것의 일부이다.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며, 밀러파 역사에서의 첫 번째 실망과 대실망 가운데 그분은 그 실망의 신비를 설명해 주는 진리를 드러내셨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첫 번째 실망 이후, 그분은 1843년 도표에 제시된 몇몇 수치에 들어 있던 한 오류에서 손을 거두셨다. 그 오류는 그 실망을 초래한 예언에 대한 오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밀러주의자들은 결국 일련의 이해로 이끌림을 받아 2300일의 시작일을 견고하게 확립하였다. 주로 십자가의 날짜에 근거한 그 견고한 기점이 마련되자, 그들은 1843년을 식별하는 데 사용해 오던 동일한 예언적 증거가 사실상 1844년만이 아니라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바로 그 날까지도 지목하고 있음을 보았다.

두 번째, 곧 대실망 이후에, 주님께서는 1844년 10월 22일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들이 잘못 선포함으로써 생겨난 모든 예언적 난제를 풀어 주는 진리를 다시금 계시하셨다. 주님께서는 성소의 주제와 그와 연관된 진리들을 열어 보이셨고, 그래서 대실망은 설명되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는 학생들이 되어야 하며, 다니엘과 요한의 환상 속에 드러난 성소의 주제에 관해 정통해질 때까지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 주제는 우리의 현재 입장과 사역에 큰 빛을 비추어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경험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준다. 이것은 1844년에 우리가 겪은 실망을 설명해 주는데, 정결하게 될 성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땅이 아니라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한 천사의 말씀,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를 성취하시기 위해 거기에서 그의 제사장 직분의 마무리 사역을 수행하고 계심을 보여 준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우리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위대한 이정표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지옥의 무리들이 그것들을 그 기초로부터 뜯어내려 하고,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승리를 자축할지라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진리의 기둥들은 영원한 산들처럼 굳건히 서 있으며,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합쳐져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경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늘 성소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심판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최종 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3년 11월 27일.

십자가에서의 사건 때 제자들이 겪은 실망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실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문자적 이스라엘과 문자적 지상 성소의 경륜이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하늘 성소로 전환되었음을 밝히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언제나 '지혜로운 자들'에게 그 실망을 설명한다. 로마가 '여덟째이되 일곱에 속한 자'라는 예언적 수수께끼에 대한 해석은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을 설명하기 위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수행하고 있는 사역의 일부이다.

밀러주의자들은 로마를 성경 예언에서 네 번째 왕국으로 보았고, 이교와 교황권을 구분했지만, 교황 로마를 성경 예언의 다섯 번째 왕국으로는 보지 못했다. 1844년 직후, 선구자들은 미국이 성경 예언의 다음 왕국임을 깨달았다.

그 인식은 1850년 선구자 도표에 나타나 있지만, 요한계시록 17장에 제시된 대로 성경 예언에 나오는 왕국들의 전체 도해를 알아보는 그들의 능력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는 그들이 1863년에 "일곱 때"를 거부한 뒤 라오디게아의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재림교회가 과거에 겪은 경험의 뚜렷한 예증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재림 운동에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대실망 때 그들의 믿음은 홍해에서 히브리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시험을 받았다. 만일 그들이 과거의 경험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던 인도하시는 손길을 여전히 신뢰했다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다. 만일 1844년에 한마음으로 그 일에 힘쓴 모든 이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선포했다라면, 주께서 그들의 노력과 함께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세상 위에 풍성한 빛이 비추어졌을 것이다. 오래전에 땅의 거민들이 경고를 받았고, 마무리 사역이 완성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사십 년 동안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음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 히브리서 3:19. 그들의 타락과 배교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고, 다른 이들이 일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처럼 오래 지연되고 그분의 백성이 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불신이 그들을 하나님과 갈라놓았다. 그분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를 거절했으므로, 다른 이들이 일어나 그 기별을 선포하게 되었다. 세상을 향한 자비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오심을 늦추고 계신다. 이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경고를 들을 기회를 얻고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시려는 것이다. 위대한 논쟁, 458.

제임스와 엘렌 화잇은 둘 다 그 운동이 1856년에 라오디게아의 운동으로 전환되었음을 지적했고, 그녀는 앞선 문단에서 "1844년에 그 일에 연합하여 수고했던 모든 이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선포했다라면, 주께서 그들의 노력과 함께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이와 같이" 고대 이스라엘이 드러낸 "배교와 타락"이 고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멸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 본문은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선포했던 이들이 아직 살아 있던 시기에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이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신학자들(학식 있는 이들)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한 다양한 적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예수회가 고안한 미래주의적 방법론에서 비롯되었거나, 배교한 개신교의 부패한 신학적 관행에서 파생된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상징들은 매우 단순하다. 우리는 필요한 상징들을 확인했으므로, 이제 거기에 나타난 왕국들로 돌아가 그것들을 다니엘서 2장의 왕국들과 대응시키겠다.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어떤 일의 끝을 그 시작으로써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곱 왕이 있는데, 그중 다섯은 몰락했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가 올 때에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지속될 것이다. 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째이며, 일곱에 속해 있고,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들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7:10-12.

3절에서 요한은 영적으로 1798년으로 옮겨졌다. 그 역사적 시점에서 그는 이미 무너진 다섯 제국이 있다고 들었다. 그 제국들은 바벨론, 메대-바사, 그리스, 이교 로마, 교황 로마였다. 윌리엄 밀러는 17장의 이 본문을 풀지 못했는데, 교황 로마가 이교 로마와 구별되는 별개의 왕국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서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다루어진다. 12장의 용은 이교 로마를 대표했고,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교황권이었으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이다. 엘렌 화잇은 이 세 짐승을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규정한다. 그녀의 증언을 통해 왕국들의 순서를 밝히는데, 그 순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적용하고 있는 해석과 일치한다.

큰 붉은 용,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이라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특히 짓밟고 그의 백성을 박해하는 데 앞장설 세상 정부들이 요한에게 제시되었다. 이 전쟁은 세상 끝까지 계속된다. 거룩한 여자와 그 자녀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은 크게 소수로 묘사되었다. 마지막 날들에는 오직 남은 자만이 여전히 존재했다. 이들에 관해 요한은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한다.

사탄은 먼저 이교를 통하여, 이어서 교황권을 통하여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을 땅에서 지워 없애려는 노력 가운데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였다. 이교도들과 교황주의자들은 동일한 용의 영에 의해 움직였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는 교황권이 더 위험하고 잔혹한 원수였다는 점뿐이었다. 사탄은 로마 가톨릭주의라는 수단을 통해 세상을 포로로 삼았다. 하나님의 교회라 칭하던 교회가 이 미혹의 대열에 휩쓸렸고, 천 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용의 진노 아래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교황권이 그 힘을 빼앗겨 박해를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요한은 용의 음성을 메아리치며 같은 잔혹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이어갈 새로운 권세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교회와 율법에 맞서 전쟁을 벌일 마지막 이 권세는 어린양 같은 두 뿔을 가진 짐승으로 상징되었다.

그러나 예언의 준엄한 필치는 이 평화로운 장면에 변화가 일어남을 드러낸다.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이 용의 목소리로 말하며, '그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한다.' 예언은 그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고 말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그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가 아니면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개신교는 교황권의 발자취를 따른다. Signs of the Times, 1899년 11월 1일.

마지막 대목의 첫 단락에서 화이트 자매는 이교 로마, 교황 로마, 그리고 미국을 "지상의 정부들"로 지목한다. 둘째 단락에서는 "through paganism, and then through the Papacy,"("이교를 통해, 그리고 이어서 교황권을 통해")라고 말하고, "when the Papacy, robbed of its strength, was forced to desist from persecution, John beheld a new power coming up to echo the dragon's voice, and carry forward the same cruel and blasphemous work."("교황권이 힘을 빼앗겨 박해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요한은 용의 음성을 메아리치고 동일한 잔혹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계속해 나갈 새로운 권세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여 그 정부들이 순차적이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셋째 단락에서 그녀는 미국이 온 세상에 또 다른 왕국을 강요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은 용의 음성으로 말하며, '그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한다.' 예언은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고 말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이교 로마, 교황 로마, 미국, 그리고 미국에 의해 세워지는 짐승의 세계적 형상을 지목한다. '짐승의 형상'의 정의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며, 온 세상이 짐승의 형상을 세운다는 것은 정의상 마지막 때에 세계 단일 정부가 온 지구에 강요될 것임을 가리킨다. 그 왕국은 국가와 교회로 구성되며, 교회가 그 관계를 지배한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네 개의 연속적인 왕국을 지목하고, 그 동일한 왕국들이 17장에도, 또한 다니엘서 2장에도 나타난다.

1798년에 요한은 성경 예언의 첫 다섯 왕국이 이미 몰락했으며, 그때 한 왕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다. 1798년에 시작된 성경 예언의 그 왕국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의 짐승으로, 어린 양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용처럼 말하게 된다. 미국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다섯째 왕국인 영적 바벨론을 뒤이은 두 뿔을 가진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다. 다섯째 왕국은 영적 바벨론이었으며, 그것은 첫째 왕국인 문자적 바벨론으로 예표되었다. 두 뿔을 가진 여섯째 왕국은 은으로 된 두 팔로 예표되었다.

1798년에는 아직 미래에 있을 한 왕국이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는 1798년에 "다른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일곱째 왕국이 역사 속에 등장했을 때, 그것은 오직 "짧은 기간만 계속"될 것이다. 다섯째 왕국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고, 여섯째 왕국은 두 뿔을 가졌으며, 일곱째 왕국은 오직 잠깐 동안만 존속한다. 이 구절의 문맥은 일곱째 왕국이 "열 왕"으로 대표됨을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열 왕"이 하나의 왕국이 될 때 그들은 단지 "한 시간"만 다스리며, 그 "한 시간"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 왕"이 통치할 때, 그들은 그 "한 시간" 동안 짐승과 함께 통치한다.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들이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왕과 같은 권세를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7:12.

"열 뿔"은 일곱째 왕국이지만, 그들은 "한 시간" 동안 짐승과 함께 통치한다. 이 "한 시간"은 미국에서 곧 시행될 일요일법으로 시작되는 일요일법 위기의 기간이다. 그들은

주요 왕, 곧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짐승과 함께 통치하기로 동의한다. 우리가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 화잇 자매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마지막 권세가 땅의 짐승임을 지적한다.

요한은 용의 음성을 메아리치고 동일한 잔혹하고 신성모독적인 일을 이어 가기 위해 일어나는 새로운 세력을 보았다. 교회와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일 마지막 세력은 어린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상징되었다. 사인즈 오브 더 타임스, 1899년 11월 1일.

성경 예언의 마지막 왕국은 거짓 선지자로서의 미국이 행한 기만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왕국은 1798년에 어린 양처럼 시작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짐승의 전 세계적인 형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그 '짐승의 형상'은 정의에 따르면 교회가 관계를 주도하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뜻한다. 그 왕국은 또한 삼중 연합으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간극을 넘어 손을 내밀어 심령주의와 손을 잡는 데 가장 앞장설 것이다; 그들은 심연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로마 권세와 손을 맞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데 있어 로마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대논쟁, 588.

삼중 연합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연합으로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그들이 땅의 임금들에게로 나아가 온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이적을 행하는 귀신의 영들이라, 온 땅, 곧 온 세계의 왕들에게로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으로 그들을 모으려 하더라. 요한계시록 16:13, 14.

"로마 권세"는 교황권이며, 성경 예언에서 치명상을 입은 짐승이자 다섯째 왕국이다. "개신교도들"은 미국을 상징하는데, 그 미국은 거짓 선지자이자 성경 예언의 여섯째이자 마지막 왕국이다. "강신술"은 유엔, 곧 용이며, 짐승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통치하기로 동의한 왕국이다. 삼중 연합은 "한 시간", 곧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것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교황권의 제도를 강제하는 법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의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그 손을 심연 너머로 뻗어 로마 세력의 손을 잡게 될 때, 또 그 손을 심연 위로 뻗어 강신술과 손을 맞잡게 될 때, 이 삼중적 연합의 영향 아래서 우리 나라가 개신교적이며 공화정적인 정부로서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배척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미혹을 퍼뜨리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기이한 활동의 때가 이르렀으며 종말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다." Testimonies, volume 5, 451.

다니엘서 2장에서 금 머리로 상징된 성경 예언의 첫째 왕국 바벨론은 성경 예언의 다섯째 왕국인 영적 바벨론을 예표한다. 은으로 된 어깨와 팔, 곧 다니엘서 2장에서 성경 예언의 둘째 왕국인 메대와 페르시아의 이중 왕국은 두 뿔 가진 땅의 짐승, 곧 미국,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을 상징한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눈, 성경 예언의 셋째 왕국인 그리스를

나타내는 것은 국제연합을 "한 시간" 동안 지속하는 일곱째 머리로 상징하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에 가담하기로 동의한다.

다니엘 2장의 철의 왕국, 곧 성경 예언의 네 번째 왕국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 왕국을 상징한다. 실제의 이교 로마, 즉 네 번째 왕국은 현대 로마를 대표하는데, 현대 로마는 정교 결합으로 구조화된 왕국이며 그 관계를 교회가 지배한다. 그 왕국은 본질적으로 삼중적이다. 이는 '열 왕'의 우두머리 왕이 여섯째 왕국, 곧 땅의 짐승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왕국은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이다. 여섯째 왕국이 그 삼중적 연합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현대 로마이며, 그에 앞서 다섯째 왕국인 교황 로마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네 번째 왕국인 이교 로마가 있었다.

밀러주의자들은 로마만을 네 번째이자 마지막 왕국으로 보았다. 그들은 그것이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 뒤를 잇는 다른 지상 왕국은 보지 못했다. 네 번째 왕국은 이교 로마였고, 그 뒤를 다섯 번째 왕국인 교황 로마가 이었으며, 다시 그 뒤에는 여섯 번째 왕국인 현대 로마가 뒤따랐다. 여섯 번째 왕국은 로마의 세 가지 형태 중 세 번째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은 현대의 로마이자 또한 큰 바벨론이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 미국, 유엔, 그리고 두로의 음녀는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왕국을 대표하지만, 그들 셋 모두는 제6왕국의 삼중 연합에서 동맹으로 결합해 있으며, 이 연합은 '교회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 마지막 권세다.

미국은 여섯째 왕국의 3분의 1이다. 유엔은 삼중연합의 일부로서 역시 여섯째 왕국의 3분의 1이며, 교황권도 여섯째 왕국의 3분의 1이다. 이 수준에서 미국의 수는 6이고, 유엔의 수는 6이며, 교황권의 수는 6이다. 이 삼중연합은 사람의 수, 곧 '죄의 사람'의 수를 나타내며, 그의 수는 6-6-6이다.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이는 사람의 수이니, 그 수는 육백육십육이라. 요한계시록 13:18.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별개의 왕국은 미국이지만, 거짓 예언자이기에 세상을 속인다.

그는 그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며,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온 첫째 짐승을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한다. 또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 눈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은 이적들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칼에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 13:12-14.

"그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권세"는 496년에 클로비스를 시작으로 유럽의 왕들이 교황권에 부여한 권세를 가리킨다. 미국은 군사력과 더불어 경제력을 이용해 세계를 속이고 강압한다. 미국은 일요일 예배의 강제를 통해 세계로 하여금 교황권을 경배하게 만든다. 미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함으로써(불은 메시지를 상징함) 큰 이적을 행하는데, 이는 정보 슈퍼하이웨이를 통해 성취될 것이며, 그것은 세뇌와 선전의 완전한 발전, 곧 현대적 최면의 구현을 의미한다. 이슬람이 민족들을 분노하게 하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세상에 가져온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세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구성된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라는 전 세계적 체제를 받아들이도록 속임을

당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이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고 말할 때, 그 수는 여섯째이자 마지막 왕국을 이루기 위해 하나로 결합하는 세 권세이다. 그 666의 왕국이 세워질 때, '여덟째 왕은 일곱에 속한다'는 예언적 수수께끼가 성취될 것이다. 그 예언적 수수께끼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을 떼어 여실 때 드러나는 진리의 일부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중의 제6 왕국이자 상징적 70년 동안 잊혀졌던 영적 바빌론이며, 현대의 로마이고 또한 바빌론의 첫째 왕국과 이교 로마의 넷째 왕국에 의해 예표된 짐승의 전 세계적 형상인 최후의 왕국에 대한 수수께끼는, 이 진리를 깨달을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규정을 통해 두 번 증언된다. 이는 666의 수수께끼가 지혜 있는 자들을 전제로 하고, 여덟째 왕이 일곱에 속한다는 수수께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혜가 여기 있다.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이는 사람의 수이니, 그 수는 육백육십육이라. 요한계시록 13:18.

지혜 있는 마음이 여기 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그 위에 앉아 있는 일곱 산이다. 요한계시록 17:9.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 해제는 악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이해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지혜에 대한 두 번의 언급은 "총명"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며, "지혜로운 자들"이 깨닫는 것은 "지식의 증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그 "지식의 증가"는 여덟째 왕국, 곧 666의 삼중 왕국이 다니엘서 2장에도 표상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계시인데, 이는 밀러의 꿈의 보석들이 마지막 때에 열 배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깊은 일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 영감으로 기록된 책에 붙여진 이름, '계시' 자체가 이것이 봉함된 책이라는 주장과 모순된다. 계시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주께서 친히 이 책에 담긴 신비들을 그 종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모든 사람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열려 있기를 뜻하신다. 그 진리들은 요한의 시대에 살던 이들에게뿐 아니라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사는 이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이 예언에 묘사된 장면들 가운데 어떤 것은 과거의 일이고, 어떤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또 어떤 것들은 어둠의 세력과 하늘의 왕자 사이의 위대한 투쟁이 마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어떤 것들은 새롭게 된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승리와 기쁨을 드러낸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의 뜻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의 의미를 알기 위해 이 책을 연구하는 일이 헛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말라. 이 신비들을 요한에게 계시하신 분께서 진리를 부지런히 찾는 이에게 하늘의 것들을 미리 맛보게 하실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마음이 열린 이들은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서로 만나 종결을 이룬다. 여기서 다니엘서는 보완된다. 하나는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이다. 봉함된 책은 계시록이 아니라,

말세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의 그 부분이다. 천사는 명령하였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다니엘 12:4. 사도들의 행적, 584, 585.